

용서와 자유

윌리엄 맥도날드 지음 / 유 지훈 옮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傳道出版社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1-31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전화: (0344) 914-2732 팩스: (0344)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Ilsan4-dong, Ilsan-gu, Koyang-shi,

Kyunggi-do, 411-314, KOREA

Born To Win

by
William MacDonald

EMMAUS BIBLE SCHOOL
BOX 980
OAK PARK • ILLINOIS 60301

차 례

1. 읽은 양	7
2. 선한 사마리아인	14
3. 바리새인과 세리	21
4. 돌아온 탕자	27
5. 부자와 나사로	34
6.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40
7. 간음중에 잡힌 여인	47
8. 가장 큰 범죄	55
9. 십자가의 강도	64
10. 두 전도자	72
11. 우물가의 여인	79
12. 누명	84
부록: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가?	89

잃은 양

마태복음 18장 12절~14절, 누가복음 15장 1절~7절

잃은 양-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백 마리의 양떼를 가진 목자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무리를 떠나 방황하다가 완전히 잃어버린바 되었습니다. 이제 목자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아직도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이 남아 있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흔 아홉은 놔두고 잃어진 한 마리를 쉬임없이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 하셨습니다. 그 중 한 부류는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파)과 서기관들(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결코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길 잃은 양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대표하며,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회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흔 아홉 사람들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를 떠나 방황하는 양과 같습니다. 그 양은 몹시 어리석고 둔했습니다. 그 양은 잃어진 바 되었고, 도움을 바랄 수 없는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자기 스스로는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길 잃은 양과 같다고 말했습니다(벧전 2:25).

주 예수님은 물론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며(요 10:11). 큰 목자이시며(히 13:20), 목자장이십니다(벧전 5:4). 그럼 지금부터 잃어진 양을 찾아나서는 목자와 예수님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가요 이상의 사랑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 훨씬 전부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으로 하여금 하늘 집을 떠나 이 세상으로

오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계셨습니다. 하늘로 들어가 그분을 괴롭힐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안식과 평안은 더할 나위가 없이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잃어진 양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늘을 떠나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으로 하여금 이 죄의 정글로 내려오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으로 내려와 베들레헴에 있는 가축우리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자신을 얼마나 낮추는 일이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것처럼 부유하신 분이로서 것처럼 가난하게 되신 것이 그분에게 어떠한 댓가를 치루게 했었는지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비유에 나오는 목자처럼 잃어진 양을 찾아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간들은 그분을 배척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찾고 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핍박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찾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벗들조차 그분을 버렸지만 그분은 여전히 찾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뒤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잃은 양을 찾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분의 말씀처럼 그 목자께서는 양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

이것은 정말 혼한 일이 아닙니다. 혼히 양이 목자를 위해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는 양을 푸주한에게 팔아 돈을 얻습

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양을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같보리 위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에 대한 값을 대신 치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잃은 양을 구원하기 위해 치루셔야 했던 그분의 고난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용서를 얻는 법

이제 그 선한 목자께서는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십니다. 어떤 잃어진 죄인이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죄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롬 6:23). 우리가 구주께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구출한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어깨가 힘을 뜻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실 수도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7~29).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찾은 자기 양을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갈 때까지 걸음을 멈추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도 자기의 모든 양을 천국집으로 데려갈 때까지 걸음을 멈추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저 천국집에 안착(安着)할 때마다 그분의 마음은 몹시 기뻐하십니다!

오래 전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시를 지어 선한 목자께 드렸습니다. 시편 23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월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① 행복한 삶의 비결 —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세상에는 “여호와와는 하나의(a)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또 “여호와와는 그(the)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치가 못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여호와와는 나의(my) 목자시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행복한 죽음의 비결 —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며, 사망의 골짜기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③ 행복한 영원의 비결 —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미래가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자기 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셨으며, 그분은 자기 약속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전에 생키(Ira D. Sankey)는 다음과 같은 찬송가에다 곡을 붙였는데 이 찬송가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와, 그분이 잃은 양을 어떻게 찾으셨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양 아흔 아홉 마리는 우리에게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아흔 아홉 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넘고 물건너
그 어둔 밤이 새도록 큰 고생 하였네
그 양의 울음 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찢리셨도다
가시에 찢리셨도다.

〈통일찬송가 191장〉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 30절~37절

에 루살렘과 예리고 사이에 난 길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적들이 득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길이 설혹 있다손 치더라도 극히 적었으며,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이나 군인들도 거의 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성을 연결하는 통로는 오직 그 길 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택하는 수 밖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유대인이 사막길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산적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그를 해쳤습니다. 그가 지니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그의 옷이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벗긴 후, 의식을 반쯤 잃은 채 피를 흘리는 그를 그냥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흠먼지 속에서 몸을 비틀고 뒹구는 그 희생자를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대개는 제사장이 그를 도와주었을 테지만 자기 목숨이 그런 위험한 광야에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던 길을 서둘러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자기

목숨이 더욱 위태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통행인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직업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명백히 응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강도의 희생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하다간 올가미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멈춰 서서 희생자를 도와줄 때 산적들이 그에게 달려들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나귀를 타고 그 곁을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편견과 경멸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피차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재난을 당한 유대인을 보았을 때 즉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종적인 편견과 자신에게 닥칠 위험도 잊은 채 상처를 씻은 다음, 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아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싣고 길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최선을 다해 그를 계속 돌봐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사마리아인은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상처입은 유대인이 다시 여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일 돈이 모자라면 여행에서 돌아올 때에 나머지를 갚아주겠다고 그는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 자리잡고 있던 악감을 감안할 때 사마리아인인 그가 유대인에게 그와 같은 자비를 베푼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웃

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가르치시고 자 하는 어떤 특별한 교훈을 언제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님께서,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어떤 서기관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서기관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회피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주 예수님께서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그의 질문에 답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인종이나 신조나 피부색에 상관 없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갖는 주된 교훈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또 절대적인 필요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이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그림입니다. 이 비유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과 얼마나 흡사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강(평화)의 성”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남쪽의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요단 강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평강의 성을 떠나 죽음의 성을 향해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상기 시켜 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14:12).

이처럼 아래로 내려가다가 그는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아래로 내려갈 때 곤경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쾌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고 말합니다(잠 13:15). 죄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결과들을 낳습니다.

강도들이 그 가련한 사람을 약탈한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죄는 인간에게서 정결함과 기쁨과 가치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을 상해하고 거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것은 죄가 인간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 심통(心痛)과 비참, 죄의식, 혼적, 후회 등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댓가를 지불할 날은 틀림없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죄의 삯은 사망이기”때문입니다(롬 6:23).

율법과 은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갔지만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도와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교훈을 시사합니다.

첫째로, 죄인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의지할 바가 못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됨이니이다”(시 60:11,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의 구원은”으로 나와 있음—역자주).

둘째로, 설교자나 제사장이나 랍비 등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조차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임명한 것은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특히 십계명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인간의 얼굴이 더럽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인간의 얼굴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점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밝혀 두고 싶은 것은, 주님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이 마치 사마리아인인 것처럼 그분을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그분보고 실제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요 8:48).

주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잃어진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늘을 떠나 이 죄악의 정글로 오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 곤경에 빠진 유대인을 것처럼 도와준 것은 참으로 자비로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운 행위는 생명과 영광의 주님께서 경건치 못한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바울은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8:19).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케 하려고 육신적으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사랑과 희생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목숨을 위협에 내맡긴 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 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위협에 내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실제로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갈 2:20).

선한 사마리아인은 길에 누워 있는 희생자의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영적인 소경들을 보게 하십니다(눅 4:18).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쏟아부은 기름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구주께서는 죄로 상처입은 삶 속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부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길에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 특히 지역교회의 따뜻한 교제 속으로 이끄십니다. 만약 우리가 혼자만 따로 있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 빠질 위험에 항상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통해 우리는 올바르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강건해질 것입니다.

여관을 떠나기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성경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집회와 주님의 만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 영원히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구주께서 곤경에 처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아름답고 정확한 그림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오늘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세 종류의 철학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네 것은 내 것이니까 이리 내놔.”- 이것은 강도의 철학이었습니다.

둘째로, “내 것은 내 것이니까 남에게 줄 수 없다.”-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철학이었습니다.

셋째로, “내 것은 내 것이니까 나는 내 것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철학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복음 18장 9절~14절

우선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의미부터 살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엄하게 지킨다고 자랑하는 종파의 한 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별로 가치 없는 세부사항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정작 중요한 생활의 의무들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몸소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터라 종교인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세리는 로마정부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압제자들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은 그들을 매국노로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또 세금 중에서 일부를 착복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종교활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마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처럼, 또 저기에 있는

천한 세리처럼,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라의 원수들을 위해 일하지도 않으며, 착복을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정기적으로 헌금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늘에 섰습니다. 그는 자기가 너무나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보지조차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며, 자기를 한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상의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분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했기 때문에 전과 다름없는 죄인으로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도를 살펴보고 우리는 과연 어느 사람과 같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

바리새인의 기도는 모두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는 표현을 무려 다섯 번씩이나 사용했습니다(우리 말 성경에는 두 번 나와 있음-역자 주). 그는 자기가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일 년에 단 한번의 금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레 16:29, 23:27, 29, 민 29:7) 그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이에 반해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처럼 여기고 멀리 서서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이 가슴을 치는 행동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자아를 낮추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 나이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표준, 곧 율법과 비교하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십계명은 마치 직선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직선 옆에 갖다놓고 비교해 볼 때에만 자기가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봄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표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막 12:30 참조)
-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막 12:31 참조)
-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가?(출 20:12 참조)
- 나의 생각은 항상 깨끗한가?(막 7:21~23 참조)
-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보지 않았는가?(마 5:28)
- 나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선을 행했는가?(약 4:17)
- 나는 도적질해 본 적이 없는가?(출 20:15)

-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가?(출 20:16)
-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는가?(출 20:13)
-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본 적이 없는가?
(출 20:7)

올바른 길과 잘못된 길

세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표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가를 자랑했지만 세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를 의탁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마치 자기가 유일한 성도인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라고 말했지만 세리는 자기가 유일한 죄인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제물(祭物)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대속물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죄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희생제물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희생제물을 마련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롬 6:23).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치워졌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함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세리는 자비를 구했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은 죄인인 채로 돌아갔지만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분에게로 나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먼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은 탓으로 낮춤을 받았으며, 세리는 자기를 낮추었으므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두 사람은 세상의 두 종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하여 세상에는 불교, 힌두교, 유대교, 기독교 등 많은 종교가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보면 근본적으로 세상에는 오직 두 종교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종교를 대표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인간은 선한 일을 하거나 종교인이 되거나 헌금을 하거나 최선을 다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

만 그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선한 일을 했는지, 혹은 올바른 일을 했는지를 그들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참된 종교를 대표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이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사로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바리새인의 종교는 한마디로 “행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날마다
모든 점에 있어서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도다

그러나 세리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저는 손에 아무것도 든 것 없이
그저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저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 옷을 입기 원하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받기 원합니다.
저는 더러운 모습 이대로
샘으로 달려가오니
구주시여, 저를 씻어주소서

돌아온 탕자

누기복음 15장 11절 ~ 32절

그날은 감정이 격앙될대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은 가정생활에 넉더리가 났으므로 이제 집을 아주 떠나야
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그에게 돈이 없다는 것이
었습니다. 모든 돈은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한다면 그는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버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소 냉정한 태도로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저에게 올 유산을 지금 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의 말에 아버지는 칼에 찔린 사람처럼 잠시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에게 전부 주었으며, 둘째 아들은 이것을 받아
마자 죄악의 도성을 향해 곧장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야 정말로 살 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잔소리도
더 이상 없고, 세대차도 더 이상 없습니다. 노인의 간섭에서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재미있는 쇼도 많이 보
고, 먹고 마시며, 마약과 도박도 즐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친구였으며, 특히 그가 멋있는 재즈광(狂)이라는 것을 아는

젊은 여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돈을 몰쓰듯 썼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그는 휘황찬란한 나이트클럽에서 자기 친구들을 위해 쇼를 치렀습니다. 이걸 보고 그들은 “저치 말이야, 재미있는 곳만을 찾아 다니며 돈을 뿌린다구”라고 말하며 놀려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서까래가 내려앉았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는 수 없이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고용해 주지 않습니다. 물기는 높기만 하고, 식량은 바닥이 났으며, 만기일이 넘은 계산서는 자꾸만 쌓여갔습니다.

한량(閑良)에서 돼지치기로

이 몇장이는 배가 고팠지만 그의 친구들은 이미 그를 떠났습니다. 가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를 때에도 그에게 마실 것을 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셋돈도 지불할 형편이 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거리로 쫓겨 났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일자리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돼지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돼지들의 배는 채워져 있었지만 그의 배는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코를 찌르는 돼지우리 옆에 서서 자기 가정, 잘 꾸민 식탁에 둘러 앉은 가족들을 종종 생각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그의 코에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생각이 자기 집의 종들에게 미쳤을 때 그들의 처지가 자기보다 훨씬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금 배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몹시 어리석은 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자신이 것처럼 나쁜 부랑이였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 멀리서 걸어오는 자기 아들을 알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탕지는 흐느끼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지만 아버지의 포옹과 입맞춤으로 인해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어떠한 환영입니까! 꾸지람도 없고, “거 봐. 내가 뭐라든!”이라는 말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랑, 그저 사랑뿐입니다!

그들이 집에 이르자마자 종들이 사방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이 좋은 옷을, 이 좋은 금가락지를, 이 좋은 새 신을 들고서…… 그런 다음에 그들은 송아지를 잡아서 굵고 온갖 음식을 마련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는 기쁨에 넘쳐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 잔치는 밤 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그 잔치가 어찌된 영문 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화를 벌컥 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투덜댔 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본 적도 없고, 죄악의 도성으로 가본 적도 없으며, 아버지의 돈을 젊은 여자들에게 허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를 위해 이와 같은 잔치를 벌여 본적이 있나요? 송아지는 커녕 염소새끼 하나 구워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 동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런 녀석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잔치를 다 차려 주었군요. 저는 지금까지 늘 바른 품행을 가져왔는데도 아버지

가 저에게 해준 것이 도대체 뭐예요?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다정한 태도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의 요지는 결국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는 흠이 없으므로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

주님께서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분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에 대하여 그분을 비방했던 것입니다(2절). 비유 속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둘째 아들은 죄인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맏아들도 역시 죄인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다. 그는 자신을 동생과 비교한 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시지, 자신의 선행과 결백을 늘 자랑하고 다니는, 부서지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죄인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 비유의 요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에서 다른 교훈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고자 하여 유산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의 가슴은 틀림없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뿐 아니라 그분의 가슴까지 찢어지게 만듭니다.

둘째 아들은 먼 타국으로 가 거기서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우리들도 대부분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맛보고 싶어하며, 죄악의 쾌락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우리도 탕자처럼, 죄악의 쾌락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과 영원한 만족을 결코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떨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그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들을 참으로 필요로 할 때는 그들이 그를 내동댕이쳤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미귀의 나라에서는 아무 것도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이든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고 사야만 한다.”

그런데 흉년, 즉 어려운 시기는 겉보기와는 달리 하나의 축복입니다. 예를 들면, 비극이나 사고, 질병, 슬픔 또는 어떤 심각한 위기 따위는 우리로 하여금 제 정신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탕자가 구할 수 있었던 일자리는 오직 돼지치는 일뿐이었는데 이 일은 부랑자들이나 하는, 실로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죄는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탕자는 곤궁에 처해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께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을 때 언제나 하늘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가 집을 나간 후부터 줄곧 그를 위해 기도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기도는 사태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사람도 변화시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혹은 아버지)의 기도가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환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좋은 의미로 서두르시는 하나님이 기록된 곳은 오직 이 탕자의 비유에서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돌아

오는 죄인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달려 나가십니다.

“제일 좋은 옷”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의(義)의 옷입니다(고후 5:21). “신”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되 종으로서가 아니라 상속자로서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 기쁨은 한량없습니다.

어느 현대판 탕자

몇 해 전에 어떤 청년이 자기 가정을 떠나 다른 곳에서 호사스럽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마구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십 년 동안이나 하여 그는 자기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쳐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집으로 돌아가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과연 나를 다시 받아줄까?’ 그는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계획을 편지에 쓰고서, 만일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면 어머니가 하얀 천 조각 하나를 집 앞에 있는 라일락나무 위에 매달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레이하운드 버스는 자기 집을 지나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대답을 자연적으로 알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하얀 천조각이 보이지 않으면 그는 그냥 지나치기로 작정했습니다.

버스가 마침내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자 그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눈에 익은 농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라일락나무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으며, 그 나무 위에는 수 백 개의 하얀 천 조각들이 뒤덮혀 미풍에 필력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하나님도 집 앞에 갈보리의 십자가 나무 하나를 내놓으시고, 도처에 있는 죄인들에게 팔을 내뻗으셔서, 그들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간절히 권하고 계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19절 ~ 31절

여러분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관하여 몹시 알고 싶어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흥미를 끈다고 여겨집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최고급의 옷을 입고, 최고급의 음식을 먹었으며,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의 웅장한 창문에 드리워진 예쁜 커튼을 걷으면 그는 저 아래 대문 앞의 애처로운 광경을 언제든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련한 거지 나사로가 누워 있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냥 음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련한 나사로의 몸에 뒤덮힌 허물에서는 때때로 피고름이 흘러 나오곤 했습니다. 심지어 근처의 개들이 와서 그의 현대를 핥았지만 나사로에게는 그것들을 쫓을 힘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우리 눈에는 안 띄어도 서로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부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음에 반해 나사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는 죽었고 그의 시신이 땅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그의 장례식이 호화로운 것이 아니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는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 곧, 천국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아브라함의 품”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죽어 천국에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쉰다는 것이 곧,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을 즐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자의 죽음

그러다가 결국은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호화로운 관과 많은 조화(弔花)들, 고인의 선한 행적을 나열하는 장문(長文)의 설교 등,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음부(陰府)의 고통 가운데서 눈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으로써 실제로 고난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 때까지 거기에 남아 있다가 그 때가 되면 그들의 몸이 일으킴을 받아 자기 영혼과 재결합된 다음, 지옥(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범죄자가 형의 언도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곳이 음부라 한다면 지옥은 언도된 형을 실제로 치루는 곳이라 하겠습니까.

음부에서 부자는 큰 구렁(크게 벌어진 틈바구니) 너머로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오, 아브라함 이여, 제 부탁을 제발 들어주십시오! 나사로 보고 물을 조금 찍어다가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불꽃

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탁은 수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에게 상기시키기를, 나사로는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태는 뒤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그들 사이에 큰 구렁이 나 있어서 어느 쪽으로도 서로 왕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다섯 형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어 구원의 길을 알려주어 그들로 음부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의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읽기만 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음부와 지옥

아브라함은 마지막 말에서, 만일 사람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설령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전도를 한다면도 역시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주 예수님이 동명이인(同名異人)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어도 사람들은 그분을 죽이려 했으며(요 11:1~53), 나중에 주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관한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따분한 말은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음부나 지옥 따위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과 같은 장소를 만들어 놓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여기가 바로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음부도 실제로 있으며, 지옥도 그러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 예수님 자신이 이 두 장소에 관하여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그것들은 아주 무서운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지옥을 만드신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마 25:41). 오히려 그분은 아무도 지옥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며(벧후 3:9),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은 그가 천국을 선택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은 몸이 죽었다고 해서 영과 혼까지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잠잘지라도 영과 혼은 잠자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죽으면 그의 영과 혼은 하늘로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빌 1:23, 고후 5:6~8).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그의 영과 혼은 음부로 들어갑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이 음부는 고난을 실제로 느끼는 곳입니다. 음부의 부자는 느낌을 가졌으며(23절), 보았으며(23절),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알아보았으며(23절), 말을 했으며(24절) 갈증을 느꼈으며(24절), 기억했으며(25절), 들었으며(25절), 이성과

논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27~28절). 음부에서 당하는 고난은 참으로 끔찍한 광경입니다(23, 24, 28절).

고려해야 할 중대한 문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부자의 재물이 결코 그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이 세상을 떠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음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과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요 1:12, 3:16, 36).

우리가 좀 엄숙한 마음으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살아생전보다 음부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는 불신자가 없다.” 거기에서 그들은 믿긴 하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은 것입니다!

낙원과 음부 사이에 있는 큰 구렁은, 사람이 일단 죽으면 그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26절). 기회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전 11:3).

아브라함은 부자더러 말하기를, 그의 다섯 형제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시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고, 믿고, 순종

해야 할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경을 믿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 그분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 기적을 요구하는 따위의 “믿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사실, 이것은 불신입니다). 주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 20:29).

음부로 들어가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단 음부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빠져 나올 길은 전혀 없습니다.

구주를 거절하는 사람은 음부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도 역시 음부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

“나는 어디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까?”

회개하고, 죄인의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10절

예 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보려고 큰 길가에 죽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중들 뒤에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으며, 유대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너무 작았으므로 다른 많은 사람들의 머리 때문에 도저히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세리라는 사실은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애국적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세리장이라는 직업때문에 상당한 재물을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 사람들로 부터 너무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나쁜 평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사회에서 유력인사(有力人士)였으며 자기의 위치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목시 보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이 유대인 전도자와 그분의 진실한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에 대해 매우 강한 반감을 품고 있는 반면 보통 사람들은 열광적이라 할 만큼 그분을 따르다는 것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에게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기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즉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점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키가 너무 작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언제나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키가 작은 그의 앞에 군중들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군중들 틈바구니에서 길을 좀 터보려고 이리저리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길은 좀처럼 열려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때, 한가지 기발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근처에 마침 그가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한 그루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깐 멈칫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요컨대 세무기관의 지역책임자이며 세리장(稅吏長)인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일은 거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지만 그에게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오랫동안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보고 그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고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가지 위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변화가 곧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처음 본 그 짧은 순간에 그는 망설임 필요도 없이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그것은 분명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구주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가까이 오셔서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5절).

삭개오는 즉시 나무 아래로 뛰어내려와 군중들을 헤치고 달려와서는 자랑스럽게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경험해 본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이웃들, 특별히 성직자들은 질투로 인해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예수님께서 지체높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집을 그냥 지나치고 토색(討索)꾼과 같은 사람과 함께 머무시려는 것을 보고 비난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삭개오는 자기가 불법적으로 취한 모든 돈에 대해 생각이 미쳤으며,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렇게 얻은 돈은 반드시 도로 갚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예수님께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그의 재산중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토색한 재물에 대해서는 네 배로 갚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율법은 그에게 이렇게 까지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수입에서 십분의 일을 바치고 불법적으로 취한 재물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더 가산하여 갚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율법의 표준보다 더 차원높은 표준에 의해 인도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삭개오가 이제는 진실로 믿는 자임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단다. 너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실증(實證)해 주었구나”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마치, 밖에서 그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답이라도 하시듯,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10절)고 말씀 하셨습니다.

장애물을 넘어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귀중한 몇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자기에게는 금보다도 더 귀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능히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관계되는 한 그는 매우 가난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어떤 사람이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가 믿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상속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이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을 때,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만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잠언 29장 25절), 부(富), 그리고 기꺼이 포기하고 싶지 않은, 자기 좋아하는 어떤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이 무엇이든지간에 진실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주님을 따르

고자 하는 진실한 소원만 있다면 길은 언제나 열리게 마련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장애물들을 보지만 믿음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결코 믿음을 간과(看過)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그것을 아시고 자신의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그는 큰 소리로 울부짖을 필요도 없으며, 교회의 집회에서 손을 들거나 앞으로 걸어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란 단지 주 예수님을,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서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주님에 관하여 말해주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것을 비밀로 간직해 두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을 위하여 말해야 하리라,
비록 낮아져 하찮은 미물(微物)처럼 되더라도,
그분을 사랑한다면 말해야 하리라.

가장 훌륭한 행동

나무에 올라간 일은 삭개오가 행한 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은 그에게 축복들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전혀 꿈조차 꾸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그 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모시는 특권을 누렸으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그로부터 20세기 후의 우리에게까지 알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삭개오

는 천국에 있는 영원한 집과 구원을 확신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는 그와 같은 결정으로 인하여 연게 될 놀라운 것들에 관하여 당시에는 모두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 중의 하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나서는, 가능한 그가 믿기 전에 저지른 나쁜 일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연장을 흠친 일이 있다면 그는 그것을 돌려주어야 하며, 돈을 흠친적이 있다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그것을 올바르게 시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수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가령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있을 때 이 연장들을 흠쳤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전 지난 달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이것들을 당신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더 이상 모를 수도 있으며,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한 항상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삭개오가 죄인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자신도 이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어떤 일에 실패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잃어진 자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꺼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마음이 그들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오직 자신이 잃어진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로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구주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언제일런지,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고 있는 때가 언제일런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뜻이며, 성경이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 2절~11절

어느 날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늘 하시던대로 자기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훼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는 자기들의 숨은 동기는 위선으로 덮은 채 단지 그 여인을 간음 중에 있을 때 현장에서 붙잡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여인이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부각(浮刻)시켰습니다(레 20:10, 신 22:2). 그런 다음 그들은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의도하던 바는 예수님을 울무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서 만일 율법대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무정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며, 반면에 그녀를 놓아주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법을

여기는 것이 되어,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혜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
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무엇이라고
쓰셨는지에 대해 갖가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지만 사람들은 단지
추측만 할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발자(告發者)들은 예수님에게서 대답을 얻어내고자
더욱 재촉하며 연이어 예수님께 질문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러
자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펴서 일어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
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혹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돌려 치라.”

그리고 그분은 다시 몸을 굽혀 땅 위에 무엇인가 계속 쓰셨습
니다. 물론 그것이 어떠한 내용의 글이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
로 남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며 또한
굳이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던 짓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라고해서 무언가 다른
점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소리없이 하나 둘씩 도망치듯 물러가기 시작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
나?”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까요?

만일 우리가 이 사건을 가볍게 보아 넘긴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그 여인이 범한 간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쉬 단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자행된 성적 차별입니다. 그들은 간음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무자비하게 공중(公衆)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을 혼자서 행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남자는 보호하고 조소와 비난과 책임을 모두 그 여인에게만 지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남자들의 일반적인 성향과 인간이 만든 법은 흔히 여자들을 불평등하게 다루어왔으며, 반면에 남자들은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도록 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간음을 행한 사람이 받는 형벌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자세히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은 여인을 송사하던 사람들에게 이번 경우에는 그 율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지지하셨으며 그 판결을 집행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인을 돌로 치라.” 이것은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율법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셨다면 옳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준행하시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의 의미는 “죄(간음을 범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하였다면 그 사람 역시 돌로 맞아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 판결은 오직 동일한 죄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의해서만 집행되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말없이 물러갔다는 사실은 그들 모두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Lord)”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이 예수님께 대한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실제로 “저는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약속된 구주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서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진실로 돌이키고 그분을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대답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 이것은 은혜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 이것은 진리입니다. 주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 자신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부분은 은혜요, 둘째 부분은 소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구주께로 나아와 죄사함과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롬 8:1). 주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5:24).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심지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생각이나 말 속에서, 혹은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모르실까요? 물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에게 그분 자신의 완전한 표준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가 죄를 전혀 범치 않는 것입니다(요일 2:1).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서 죄를 조금만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므로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합 1:13). 그래서 주님은 그녀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전형(典型, ideal) -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 을 제시하셨습니다.

당신이 순종치 않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만일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이 주제를 살펴보는 데에는 몇 가지

우리가 반드시 주지(周知)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① 그리스도인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믿기 전보다는 죄를 적게 범합니다.
- ② 그리스도인이 범죄한다고 해서 자기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게 됩니다(시 51:12). 하나님과의 자녀관계는 변함이 없으며 그는 여전히 아들의 신분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어지고 따라서 행복한 가족정신은 사라져 버립니다.
- ③ 믿는 자의 모든 죄값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사 53:6).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다 장래에 속해 있었으며, 그분은 이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을 갠이주셨으므로 우리는 또 다시 죄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 ④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할 수 있다거나 죄를 범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안전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죄의 빛이 모두 지불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이제는 결코 지옥으로 들어가지는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죄의 영향력 자체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범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병이나 어떤 슬픔, 손실, 갑작스런 사고 혹은 심지어 죽음이라는 형태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고전 11:27~32).
- ⑤ 믿는 자의 삶 속에 있는, 자백하지 않은 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고전 3:12~15).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나 보낸 시간들은 영원토록 낭비된 시간입니다.

- ⑥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변호사, lawyer)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 변호하시며 “모든 것을 내게로 돌리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범한 믿는 자를 대신하시며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도록 하기 위해 계속 일하십니다(잠 28:13).
- ⑦ 믿는 자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순간 그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족정신은 회복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 ⑧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고전 6:19). 성령님은 그에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는 자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든가 혹은 “마귀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에게, 유혹에 대하여 “안돼”라고 거절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맹렬히 유혹을 받는 순간에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은 그에게 죄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이름은 건고한 땅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 18:10).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 속에는 흥미있는 일면이 있습니다. 피고인이었던 그 여인은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녀를 고소하던 자들은(만일 그들이 후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언젠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마 21:31)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 여인은 아마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잃어진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 본대로 그녀의 영혼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범죄

마태복음 27장 37~66절, 마가복음 15장 26~47절
누가복음 23장 38~56절, 요한복음 19장 19~42절

이 큰 죄악이 저질러진 곳은 예루살렘 도성 밖의 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였는데 유대인들은 그곳을 골고다, 로마인들은 갈보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해골의 언덕(Skull Hill)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곳은 시내로 들어가는 중심도로 중의 한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 어느 금요일 아침, 일단의 로마 군병들은 사형을 집행하고자 삼십대 초반의 한 젊은 남자를 그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군병들 뒤에는 그에 대한 증오로 팔미암아 얼굴을 사납게 일그러뜨린, 성난 수많은 군중들이 고향을 지르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조롱하며 비웃고 욕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왜 사형을 당하게 되는지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만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 죽임을 당하게 된 범죄자는 누구였을까요?

그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는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요셉이라는 아버지를 섬기며 자랐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약 30세쯤 되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참된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닥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행한 일들은 종교지도자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들은 몇 번이나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종의 형식적인 재판(Kangaroo Count)을 거친 후에 그들은 그를 로마인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그에게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교지도자들의 압력과 유대인들이 두려워 서둘러 재판을 마친 후, 사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에게 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간단한 개요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하지만 여러분은 이 외에도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될 것이 더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물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유지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골 1:17, 요 1:10).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무거운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자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분을 죽이려는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의 당국자들에게도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를 죽인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로 인함이었기 때문입니다.(벧전 3:18, 요일 2:2).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갈보리에 도착하자 곧 군병들은 예수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 고통을 견디도록 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받아야 할 고통을 다 받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전 9시에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십자가를 들어서 땅에 파놓은 구덩이에 높이 세웠습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다니!

하지만 이것은 실제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손으로 저지른, 바로 인간이 범한 죄 중에서 가장 큰 범죄였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사,
인간을 위하여 저주 받으셨네
그 거룩한 손이 만든 나무,
머리 위의 가시관이 되었고
그의 손과 발 꿰뚫은 못은

은밀한 곳에서 그가 만든 것이라네
 그가 만든 산의 나무,
 그의 몸 고통으로 달리게한 십자가 되다니.
 십자가 높이 세워진 갈보리 언덕도
 그가 만든 것이었네!

군인들은 범죄자들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갖는 관습이 있었습
 니다. 그들은 이어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찢 속옷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옷도 이와같이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서로 내기를 했습니
 다. 이것은 일찌기 “내 겂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시 22:18)라고 말한 다윗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
 렛 예수”라고 쓰여진 죄패를 써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달리 쓰기를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일반적으로 그들의 친척과 친구들은 그들
 이 남기는 유언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에 달리셨을 때 중요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마디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 어떠한 죄인도, 심지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은 죄인이라도 그분 앞에 나아와 회개하고 진심으로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징계를 받으십시오

성난 군중들은 뉘우치는 기색없이 오히려 흥분하여 더욱 더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조롱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야! 성전을 헐고 삼일만에 짓겠다는 자야,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종교 지도자들 역시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게 해 보아라”라고 말하며 조롱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 곧,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는 “구속사역”을 이루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과에서 그 강도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동정어린 눈길로 그녀를 내려다보시며 “여지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하시며 옆에 서 있던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하시며 그녀를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정의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오부터 하오 3시까지 흑암이 온 천지를 뒤덮었습니다. 만물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오래된 한 찬송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양도 어둠의 언덕 너머로
 그 빛을 감추었네
 전능의 창조주 그리스도,
 한낱 피조물인 인간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담당하신 시간은 세 시간 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받으셨으며, 우리가 경험해야 할 두려움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홀로 통과하셔야만 했던 고통의 심연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인간의 손에서 받은 고통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이 받으신 고통

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들

그 흑암으로 뒤덮힌 세 시간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 까?”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심판 하셔야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그 때에 만족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위에 놓여져 있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적어도 여섯 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으므로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맞보시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 군병은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염을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예수님은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오직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구주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
나이다”**라고 외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죽으실 때를 스스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때가 되었을 때 죽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요 10:18).

로마 군대의 한 백부장은 무언가 매우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된 일을 보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눅 23:47, 막 15:29)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바로 그 시간에 두 가지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상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무거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내린 것입니다(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제는 열렸다는 하나의 실물 교수였습니다).

또한, 자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덤이 열렸습니다(아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관습대로 군병들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게로 와서 그들의 죽음을 재촉하기 위하여 다리를 꺾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로 와서는 이미 운명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중의 한 병사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으므로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와 물이 남김 없이 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은밀히 따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부자가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를 파서 만들어 두었던 무덤에 갖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예수님께서서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그분은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께의 우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죽어서 영원히 땅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천국에 계십니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들만 자기의 영혼을 죽은 사람에게 의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계신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영혼을 의탁합니다.

생명과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범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십자가의 강도

누기복음 23장 32절, 39절 ~ 43절

그 날에는 주 예수님만이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는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700여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사 53:1).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두 명의 강도도 처음에는 비웃고 조롱하는 다른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의 큰 고통 가운데에 있으면서 그들이 옆에 계신 죄 없으신 구세주를 비난할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게 해 보아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지만 나중에 강도들 중의 하나는 자기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것

은 그가 회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똑같이 사형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만 이분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회개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는 강도를 그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만드신 것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의 첫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인간은 본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강도는 모두 유죄판결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을 여전히 저주하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성경의 증거는 확실히 옳습니다(롬 3:10~18을 보십시오). 인간의 내면을 깊숙히 들여다본다면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사람이 만일 구원을 받으

려면 그는 그의 죄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바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으로부터 돌아섰으며 단호히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는 누구든지 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행 17:30, 31).

하지만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즉 우리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그 강도는 자기 옆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으며, 그분을 바로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일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롬 10:9).

회개한 강도의 믿음은 그의 놀라운 고백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려는 순간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실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미래의 때에 예수님께서 자비로 말미암아 자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위대하신 구세주를 믿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매우 분명한 교훈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이 강도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그의 삶은 악한 행위로 가득찬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므로 그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성경은 반복하여 사람은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엡 2:8, 9. 딤후 3:5 참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란 그분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은 사람의 의(義)밖에 없습니다(사 64:6).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로 와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주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6:28, 29).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선한 행위가 자연히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열매이지 뿌리가 아닙니다(엡 2:10).

또한 죽어가는 이 강도의 경험은, 우리에게 구원이 침례에 의한 것도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 다. 그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침례를 전혀 도외시해도 좋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주님께 대한 자기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강도에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는 물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요점은 침례가 선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려면 이상한 느낌이 필요할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신경계 안에서 무언가 신비하고 흥분된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서 자기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을 지으려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당신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끼니까?”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는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것 뿐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진실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다만 차이점이란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뿐입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요 5:24).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믿는 자들은 죽는 순간에 즉시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3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가장 좋은 시간

나와 함께- 가장 좋은 친구

낙원에- 가장 좋은 장소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와 같은 축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엄숙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두 명의 강도가 있었지만 그 중에 오직 한 강도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이렇게 적절히 표현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낙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함부로 추정하지 못하도록 오직 한 강도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던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으며, 다른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또한 사람이 자기 생애의 맨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강도는 영원이라는 문 앞 마지막 한 계단 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때까지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를 미루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 닥쳐올는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로다”(고후 6:2).

예수님의 바로 곁에,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잃어진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세례를 받고, 등록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활동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적이 없다면 그는 여전히 잃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면 그는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 유명한 찬송가의 가사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통일찬송가 190장)

두 전도자

사도행전 16장 16절 ~ 34절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빌립보라는 그리이스 북부의 한 도시로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귀신들린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드주는 종이였습니다. 이 여인은 날마다 바울과 실라를 따라 다니며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말은 절반은 옳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물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었지만 구원의 길(a way)을 전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 밖에 없는 구원의 길(the way)**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귀신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여인에게로 돌아서서,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보고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귀신들렸던 그 여인은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인들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는 크나큰 손실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여종이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영적 축복에 대해서보다는 오히려 돈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까지 잡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가서 그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행동을 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들의 계교는 성공했습니다. 격노한 로마 행정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재판하지도 않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두 전도자는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다리는 착고에 채인 상한 몸으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깊은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낙담과 실망에 빠져서 스스로를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며 그분께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리차드 로비레이스(Richard Lovelace)의 시에서처럼 “사면의 벽이 감옥을 만들 수 없고 쇠창살이 축사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밤중쯤 되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모두 열리며 죄수들을 묶었던 쇠고랑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있던 간수가 이 진동으로 인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급히 밖으로 뛰어 나갔으며, 그의 눈 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감옥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죄수들 중에 하나라도 도망간다면 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칼을 빼내어 막 자결하려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소리쳐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칼을 놓으시오.”

이 순간 간수의 마음 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등불을 가지고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간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해도 그는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 각성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 잡았습니다. 그의 목숨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즉시 대답이 되돌아 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만큼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위는 믿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롬 4:5).

그것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십계명은 행위의 문제이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롬 8:3).

그것은 황금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

니다. 노력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는다거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을 의미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믿은 다음에 수반되는 것들입니다. 말(馬)보다 마차를 먼저 이끌어 오지 마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요 1:12).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 문을 그분에게 열어드리는 것을 뜻합니다(계 3:20).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으로 믿는 것을 뜻합니다(요 14:6).

우리는 비행기에 관한 모든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행기에 탑승하여 그 비행기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비행기를 참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해야만 합니다.

우리 몸을 의자에 의탁하고 앉아 있을 때 우리는 그 의자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결혼식 때, 여자는 한 남자를 그녀의 합법적인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여자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로 받아들이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 ① 자신은 잃어진 죄인이므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고,
- ② 예수님께서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바로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과,
- ③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 ④ 분명한 믿음의 행동으로써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날 밤, 감옥 안에서 그 간수가 믿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모두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몇 가지를 교훈하셨습니다. 많은 교훈들 가운데 그들은 아마,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할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 후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여러분들은 그들이 전날 밤에 몹시 매를 맞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와 그의 가족은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매일의 생활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 간수가 자기의 새로운 삶을 보여준 방법은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그 두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친절하게 접대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아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는 장면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로마 행정관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큰 실수를 행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을 방문하여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 성에서 떠나기를 정중히 간청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몇가지 교훈들

바울과 실라에 관한 이야기를 끝마치기 전에,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주목해 볼 만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귀신들린 여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두 전도자들을 추켜 세웠습니다. 이것에 실패하자 그는 곧 꾀박을 사용하여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매를 맞고 투옥 당하게 했습니다. 때때로 마귀는 속이는 뱀(계 12:9)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우는 사자(벧전 5:8)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간수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로써 선한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것이 세 가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도자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모셔들인 후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두 사람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을 받는다 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벧전 2:19, 20을 읽어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은 소식 -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보이는 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롬 8:28).

지진이 일어난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자연계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신문의 머릿기사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재(主宰)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행정관들이 몸소 감옥으로 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굴욕을 감수할 때 그들은 잠언 16장 7절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는 진리를 실증해 주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 5절 ~ 30절

예수님은 유대지방에서 갈릴리까지 북쪽으로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그 어떠한 대면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사마리아로 직접 통과하여 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정오쯤에, 긴 여행으로 지치신 예수님께서서는 잠시 쉬어가기 위해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신 것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화는 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자기 옆의 우물 속에 있는 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있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즉 성령님

을 모시는 사람들은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인은 그 때까지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 했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명령으로 그녀의 양심을 찢었던 것은 바로 이 때였습니다. 그녀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말로 얼른 이 곤경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게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녀를 부끄럽게 하거나 난처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그 여인이, 자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성관계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관계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 관계는 죄악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한 아무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혹은 성인들 간에, 서로 동의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것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음, 음행 그리고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죄들은 이 땅에서의 한 사람의 생애를 망가뜨리며, 마침내는 지옥으로 빠지게 합니다.

이 여인은 구원을 받기 전에 자기가 잃어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악된 과거를 지적하신 이유였습니다.

진리의 빛이 점점 그녀의 영혼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는 오래 전에 약속된 메시아(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동네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분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의 증거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으며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발견한 자기의 믿음과 축복을 혼자서만 간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귀한 교훈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영혼을 낚는데 대가(大家)이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을 잘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 여인이 자기 죄로부터 구원얻는 믿음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접근방법은 어떠했습니까?

우선, 그분은 한 가지 가벼운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심으로써 대화를 이끌어 내셨습니다(요 4:7).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그분이 그녀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수(生水)”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녀가 진정한 관심을 갖도록 이끄셨습니다(10절).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과, 그분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에 집중시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녀가 어려운 질문을 제기했을 때(12절). 그분은 친절하게 대답하셨습니다(13, 14절). 하지만 항상 대화의 초점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간절한 마음으로 생수를 얻고자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의 양심을 일깨우셔서 자신의 최악된 삶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16절).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기 전에, 반드시 그들 자신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잃어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사실들을 감추려 하였지만 주님은 그녀가 최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보여주셨습니다(17, 18절).

근란한 문제 숨기기

그 여인은 이번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종교적인 차이를 야기함으로써 문제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21, 22절).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에게 참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의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22~24절).

그녀가 장차 오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를 끄집어내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바로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25, 26절).

그녀가 구주께 굴복한 것은 이 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그녀는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권했기 때문입니다(29절). 그녀의 증거는 단순하고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손을 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동네 밖으로 나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며, 따라서 그분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증거로 인하여 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을 듣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42절).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안되는 시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찬양하며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역사입니다.

누명

창세기 39장~41장

요셉은 자기 주인의 부인을 겁탈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 없이 벌을 받게 됩니다. 키가 크고 건강한 얼굴빛을 지니고 있던 잘 생긴 요셉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그를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노예가 되어 보디발이라 불리는 한 고위층 관리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리는 애굽 왕 바로의 시위 대장이었습니다.

요셉의 개인적인 삶은 일반적으로 순결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흠을 찾아볼 수 없는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무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히브리인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고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훌륭하게, 열심히 했으며 지혜롭고 분별력있게 행동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신뢰할 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이런 그를 곧

알아보았으며 그를 존중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대담하고 욕정적이고 인정이 매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유혹과 시련

그러나 그녀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했으며, 요셉은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그는 깨끗한 예절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그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요셉의 빈틈없는 예의와 존경이 아니라 바로 요셉 자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늘 자기 주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충성스러웠으며, 지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로소프).

어느 날, 그녀는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서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녀의 손에 붙잡힌 옷자락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뿌리친 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셉이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셉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딤후 2:22). 우리는 마땅히 음행(결혼 이외의 성관계)을 피해야 합니다(고전 6:18).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악의 모든 형태로부터도 피하여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 여자는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고 집안에 있는 종들을 불러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방에 들어왔다가 자기가 소리를 지르자 옷을 팽개쳐둔 채 달아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자의 손에 들려 있는 요셉의 옷은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기에 안성마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꾸며낸 거짓말을 듣고는 대단히 화가나서 요셉을 감옥에 처넣었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이 아무 잘못된 것도 없이 함정에 빠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나 평탄하며 어떠한 환난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는 결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상

요셉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환경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직면한 바로 그 감옥이라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크림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듯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그 지위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있지 않아 그는 감옥에서 감옥 안의

제반업무를 관리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곧 이어서 그는 같이 감옥 안에 있던 다른 두 사람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 줌으로써 그의 영적인 통찰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의 꿈에 대한 요셉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왕의 술을 따르던 신하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전직이 회복되는 반면, 빵을 굽던 다른 한 신하는 나무에 매달린 것입니다.

출옥하기 전 왕의 술관원장은 자기가 다시 왕 앞에 서게 된다면 요셉을 기억하고 그의 사정을 왕에게 말씀드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하는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바로 왕이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하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몹시 혼란한 상태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요셉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7년 동안 애굽 전역에 큰 풍년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는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요셉은 왕에게 아주 적절한 충고를 했습니다. “이제 왕은 처음 7년동안 식량을 저장해 두십시오. 그래야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들어도 무사히 지날 것입니다.”

애굽 왕은 요셉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지도다. 내가 너를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으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로다.”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은 자가 되었으며 왕은 그에게 애굽의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실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에게는 재난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셨으며, 비극처럼 보이는 것으로부터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중히 여기셨습니다(삼상 2:30). 그리고 그의 시작보다 끝은 더 좋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영원히 보상받게 되는 길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가?

당신이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아래에서 그 항목을 찾아 표 하십시오.

- 1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된다.
- 2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 3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하면 된다.
- 4 선한 생활을 하면 된다.
- 5 선한 사업을 하면 된다.
- 6 황금율(黃金律)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된다.
- 7 교회에 십일조나 연보를 잘 하면 된다.
- 8 교회의 교인 명부에 등록하면 된다.
- 9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면 된다.
- 10 기도하면 된다.
- 11 금식하면 된다.
- 12 세례(침례)를 받으면 된다.
- 13 성찬식에 참석하면 된다.
- 14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된다.
- 15 학습(學習)이나 견신례를 받으면 된다.
- 16 고행(苦行)을 하면 된다.
- 17 임종 도유식(죽어갈 때 기름바르는 식)을 행하면 된다.
- 18 경건하게 종교생활을 하면 된다.

다음 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발견)해 보십시오.

• 1번과 같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 도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行爲)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로마서 3장 20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갈라디아서 3장 11절).

• 2, 3, 4번과 같이 구체 사업이나 최선의 노력이나 선한 생활을 의지하고 낙관하신다면 당신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디도서 3장 5절).

• 5, 6, 7번과 같이 황금율을 순종하느라 애쓰고 십일조를 비롯하여 연보를 잘 했을 지라도 당신은 결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에베소서 2장 8~9절).

• 8, 9, 10, 11번과 같이 교인이 되고 부지런히 집회나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며 금식할찌라도 여전히 당신은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선하고 당신을 구원하기에 넉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있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이사야 14장 6절).

• 12, 13번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완전히 오류와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세(침)례와 만찬은 이미 구원받은 참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사도행전 2장 41절, 고린도전서 11장 23~32절).

이 의식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그렇게 뜻하신 것도 아닙니다.

• 14번과 같이 그릇된 소망으로 당신의 영혼을 안위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는 뜻은 믿는 부모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 15, 16, 17번과 같이 학습이나 고행을 한다고 해서, 또는 임종하기 직전에 기름을 바르는 예식을 행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다만 사람들의 고안에 불과하며 또 이것들을 의지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낙관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 18번과 같이 유교이든, 불교이든 어느 종교이든 성실하게 믿는 다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

그러므로 앞에 열거한 어떤 방법으로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불가피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 가려는 당신의 시도는 실패하고야 말 것입니다.

□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대단히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데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자신 어느 경우에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 죽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구주께서 죽으셔야 할 필요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셨을 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두는 다만 우리가 구주의 필요를 깨닫고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요한복음 3장 36절)

요약해서 사람은 죄인이며 소위 선행이나 선한 성품이나 개인적 노력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죄인이 구주를 의지할 때에 그는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약속의 하늘나라가 보증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죽은 행실을 버리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하늘나라의 소망의 터전을 두시지 않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앞에 열거한 일들을 계속 의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없이 지옥으로 갈 것임에 틀림없으며 영원한 멸망중에서야 비로소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구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디 지혜롭게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의 기록된 말씀을 당신의 결정과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은 나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좋은 씨를 뿌립시다!

원색 사진과 함께 소재가 다양한 복음 전도지 50여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견본을 원하시는 분은(600원권 우표 동봉) 본사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종류/ 대속물

- 어떻게 보입니까?
- 책중의 책
- 여왕의 초대장
- 인생
- 팔없는 손
- 감추인 것이라 무엇인가?
- 여기 참 삶이!
- 호루라기
- 누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아프리카 산양
- 생명
- 예수 그리스도
- 종착역
- 구원의 확신
- 공허한 인생
- 구원의 길
- 만일 당신이 버리운 자라면
- 마음을 쏟아 놓으라
- 다시 찾은 배
- 선생님의 선물
- 최후의 편지
- 내 이름은 병든 세계
- 이 사건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 가인과 아벨
- 인류최대의 유산
-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 폭풍
-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 구사일생
- 불청객
-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 진단 그리고 확증
- 공의와 사랑
- 근본문제
- 족보
- 원위치
- 사면장
- 피난처
- 그 후에는
- 돌아온 아들
- 인생 표지판
- 영원한 속죄
- 돈, 건강, 교육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고의 줄타기 선수
- 다 이루었다
-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뒷면 교회 사옹관에 모이는 시간, 약도 등을 인쇄해 드립니다.

용서와 자유

- 발행일 : 1989년 9월 5일 1판1쇄 발행
1998년 12월 10일 1판4쇄 발행
 - 지은이 : 윌리엄 맥도날드
 - 옮긴이 : 유 지 훈
 - 발행인 : 이 치 일(E. Ritchie)
 - 발행소 : 전도출판사(등록 No. 4-41)
 - 연락처 :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 전 화 : (0344) 914-2732
 - 팩 스 : (0344) 917-4520
-
- 정 가 : 1,500원
-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ISBN : 89-7531-002-7 03230